

우리 문명의 기본이 되는 것은 과학과 기술입니다.
 정보통신혁명도 과학기술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만약
 우리 인간에게 과학적 재능과 지식이 없었다면 현재의
 복잡한 산업사회, 그리고 나아가 정보화사회의 국가를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로 가는길

'98년 무인년 새아침을 밝혀주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번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헌정이후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일부 국민의 과오로 경제의 최대위기이자 민족의 자긍심을 앗아버린 IMF관리체제라는 가장 치욕적인 고통을 국민과 차기 대통령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50년이란 반세기의 긴 세월동안 여당에서 여당으로만 이어진 정권의 말로가 경제 혼란으로 전락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현명한 국민의 지혜로 40년이라는 형극의 길을 걸은 야당정치인에게 파란만장한 3전4기의 인동초의 꽃을 피우게 하였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밤낮으로 금융환파에 의한 경제 파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며, 빠른 경제의 회생을 위하여는, 어떤 분야보다도 21세기 과학기술에 의한 정보산업주도로의 수출이 그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새 시대 새 정부가 당당하게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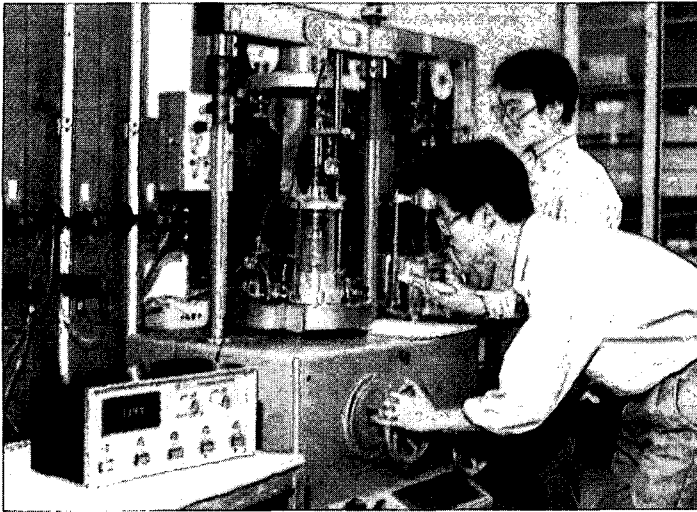
계 강국에 끼어 21세기로 가는 가장 빠른길은 먼저 21세기 과학기술로의 전자정부대국건설이라는 꿈이 이뤄지는데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새정부 앞에는 불행하게도, 가로막고있는 IMF체제라는 버팀목을 제거하는 일과, 정보산업의 활성화만이 희망찬 미래를 예고할 수있다고 확신 하기 때문에 먼저 21세기 과학기술로의 정보대국 건설지표와, IMF극복을 위한 정보산업 활성화 방안을 차례로 거론하고자 합니다.

1. 21세기 과학기술로의 전자 정보대국 건설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5,000년 전에는 처음으로 문자를 개발하였고, 500년 전에는 기계적 인쇄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50년 전에는 시청각기술과 컴퓨터가 도입되었으며, 바로 5년전부터는 네트워크의 디지털시대가 열렸습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우리는 또 다시 격변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으며, 그 중심에서는 이른바 ‘혁명’의 열풍, 즉 ‘신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전사회적 혁신이라는 동력이 앞장서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보화와 정보혁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정보화사회는 어떤 사회를 뜻할까요? 과거의 산업사회가 증기기관 발명 이후 만들어진 각종 산업이 주도한 사회라고 한다면, 정보화사회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생활화하는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탈산업사회’ 또는 ‘정보시대’ 등으로 불려온 새로운 사회인 정보화사회를 ‘사이버 체제’라는 색다른 지칭으로도 제안되고 있지만 본인은 ‘전자정보사회’라고 지칭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전자정보사회에는

첫째, 초고속정보화 기반구축 및 각종 응용서비스의 활용촉진을 통한 지능화 된 첨단 선진 복지 사회의 구현일 것이고,

둘째, 정보의 신속화, 정보의 대중화, 정보의 세계화로 고급 정보의 보유가 21세기 국부(國富)의 상징이 될 것이며,

셋째, 글로벌 초고속 통신망과 인터넷 활용의 극대화를 통해 영토는 작지만 정보를 선도하는 국가가 정보화 중심의 큰 국가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을 기초한 전자정보시대에 첨단 선진 복지국가, 정보자산의 수출 주도 국가, 정보 자산의 큰 국가의 실현을 통한 우리의 “전자정보대국 (Electronic Information Grand Korea) 건설”을 위해 정보혁명이 사회 각계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10월 본인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 연구소, 관련 기관 등 각계각층의 협조와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방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정책집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우리 문명의 기본이 되는 것은 과학과 기술입니다. 정보통신혁명도 과학기술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만약 우리 인간에게 과학적 재능과 지식이 없었다면 현재의 복잡한 산업사회, 그리고 나아가 정보화사회의 국가를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기술 도약을 위해서는 최우선과제가 연구원의 사기진작이며, 어느 분야보다 과학자가 우대 받는 사회로의 국민 인식을 바꾸는 일 또한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학과 인간 문명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며, 과학기술의 육성으로 21세기 전자정보대국 건설을 위해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보다 깊은 이해와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표류하는 경제에 국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 위기는 정경유착과 과학기술 육성 정책의 실패에 있으며, 앞으로 과학기술 육성 정책이

효과적으로 육성되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산업사회에서 경제가 과학을 지배했던 시대에 정부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Top-Down)” 과학기술정책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데 부적당합니다. 정보화사회에서 실제적이고 창의적인 과학기술은 “아래에서 위로(Bottom-Up)”의 시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기술을 복제하여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창의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아래에서 위로 (Bottom-Up)”의 과학기술정책으로 우리의 과학기술이 성공적으로 육성된다면, 과학기술의 꽃은 경제육성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간의 교류와 인간중심으로 다가올 창조화 사회로의 찬란한 미래를 향한 공통된 목표를 찾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차제에 우리나라는 지금 IMF한파에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중점적으로 정보산업의 활성화를 꾀하여야 할 때입니다. 경제성 있는 우수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출원을 지원하여,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수출 우선 정책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국제협력 교류를 일구어 통상 사절단을 파견하고, 금융 세제지원을 통해 최우선적인 수출을 통하여 달러를 벌어들이는 정보산업활성화만이 얼어붙은 IMF난국 경제를 회생시켜 21세기로 가는 가교역할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 IMF 극복을 위한 정보산업 활성화 방안

위에서 언급한 21세기 전자정보대국 건설을 위해서는 우선 IMF난국 극복을 위한 정보산업의 활성화만이 경제회생의 급선무

라고 보아 IMF극복을 위한 정보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1만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일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대학의 벤처동아리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벤처창업자에게 병역혜택을 주며, 각 지방에 특화 벤처단지를 조성하여, 각 대학에 벤처 부화장격인 정보보육지원센터와 벤처기업 마케팅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각 연구소 연구원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지원하며, 벤처동아리 지도교수제를 실시함으로써, 벤처기업과 기간기업간의 연계방법을 강구하여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 창업투자회사와 창업예정자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벤처기업관리센터, 즉 벤처양계장을 설치하며, 벤처육성위원회를 결성하고, 아울러 벤처 사업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산·학·연을 중심으로 벤처기술평가단을 구성하여 Angel Capital 및 무기명 채권 자금을 활용하는 등 벤처기업가와 자본가와의 정례모임을 가져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계기를 마련 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가 물 흐르듯이 가상 창업시장을 위한 HOME PAGE를 구축하여, 기술과 정보, 자본·정력·인력 및 취업정보·기업정보를 활용하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꾀하여 대학·연구소·기업체 HOME PAGE SITE를 소개, 벤처유통정보센터의 S/W, 벤처기업제품 및 농수산물의 직거래, 해외 기술정보 은행을 설치하고, 홈 페이지를 1월중 공개하며 한글 및 영문 버전을 동시에 구축하는 일입니다.

넷째, 교수, 연구원, 그리고 노련하고 수준높은 은퇴과학자들을 중심으로 1인1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술자문을 전담케하고, 교수를 사회봉사 활동평가에 활용함으

로써 IMF교수 산업지원제도를 구축하고, 각종 까다로운 규제를 철폐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책임지원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리해고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교육을 위하여, 재교육을 위한 인터넷 방송국을 설치하고, 취업 홍보를 위한 위성 방송국을 설치하며, SOHO족 육성을 통한 고용의 창출, 정부공공 데이터 컴퓨터 작업화등 정보취로사업을 하는 일입니다.

여섯째, 수출 우선 정책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국제 협력교류 및 기술외교를 강화하고, 중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등에 통상사절단을 파견하여, 외국의 기업유치, 병역특례지원, 기술개발지원, 금융 및 세제지원, 해외 수출 및 WTO와 무관하게 빌딩을 임대하여, 국내 첨단산업 해외 진출 유도로 기술확보 전략기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일곱째, 정품 S/W사용, 대학생 홈페이지 제작 지원으로 컴맹퇴치 컴활활동, 농어촌 컴퓨터보내기, 1기업 1점포 1홈페이지 갖기, 전국민 인터넷 주소갖기, 컴퓨터조립행사 DIO운동등 정보화 운동을 펴야 합니다.

여덟째, 초고속통신망의 조기구축을 꾀하기 위하여, 광 케이블을 포함하여 각종 통신망활용의 다원화, 통신요금의 저렴화, 사이버과학관, 사이버도서관, 사이버박물관, 사이버 공연장을 개설하여 인터넷에 연결하고, 우체국을 지역정보 센터로 활용

하여, CATV SO간 순환망을 구축하고, 백화점, 부동산, 구인광고, VOD Game등 중계 유선방송국간 순환망을 구축하며, 종합유선망과 중계유선망간의 연동과,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의 중계유선망의 사용활성화를 꾀하고, 기간망과 가입자망과 관련 표준화 작업을 꾀해야 합니다.

아홉째, 음란물 제재, 저작권 문제, 기업간의 분쟁조정을 위한 통합기구를 설치하는등 관련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열째, 교수, 전문관료, 기업, 민간단체, 언론사, 창투사, 연구소, 창업가들로 브레인뱅크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상 제시한 열가지 방안을 적극 추진하면, 정보화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IMF한파를 녹이는 확실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는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로 저마다 도약을 위한 꿈을 키우며 사이버시대의 정보통신 혁명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뤄지고 있으며, 정보화로의 지배사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루속히 우수 기업을 창출하여, 단기적 중소벤처창업을 돕기위하여는, 창

업의 걸림돌인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기술을 가진자와 자본이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주선하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며, 이 시대의 급선무이며, 얼어붙은 IMF난국을 풀어내는 열쇠이며,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선진국대열에 앞장서가는 당당한 기수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IMF한파에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중점적인 것으로는 정보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금융 세제지원을 통해 최우선적인 수출을 통하여 달러를 벌어들이는 정보산업활성화만이 얼어붙은 IMF난국 경제를 회생시켜 21세기로 가는 기교역할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